

'실록 수호의 성지, 전북' 역사적 의미 재조명

무주군, 24일까지 전북도청 로비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사고 포쇄·이안 재연 사진전 개최

무주군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순회사진전을 개최한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사고 포쇄·이안 재연'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됐고, 도민들에게 적상산사고의 역사와 포쇄·이안 재연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록 수호의 성지, 전북'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시는 무주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한다.
전시 현장에는 재연 사진 40여 점이 소개되며, 각 작품은 89x59cm 규모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QR코드를 통해 재연 영상과 해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은 지난해 무주문화원이 촬영한 기록 사진이며, 이안사가 관아로 향하는 장면 등 조선시대 의식과 행렬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2019년부터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행렬 재연을 시작했다.



무주군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순회사진전을 개최한다.

2020년에는 관련 학술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를 발족했다. 이후 반딧불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재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체험 교육형 콘텐츠 확대와 무형유산 지정 추진 등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손홍기기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미디어아트관' 재개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제2전시관이 리모델링과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4일 미디어아트관으로 재개관했다.
이번 미디어아트관은 '삼례의 자연과 시간'을 주제로 내부 리모델링과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조성된 공간으로, 총 452㎡ 규모의 전시관에 프로젝터 11대와 영상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몰입형 전시환경을 구현했다.
전시관은 삼례를 상징하는 딸기와 땀방울 테마로 한 포토존을 비롯해, 실감형 영상 콘텐츠가 결합된 전시공간으로 구성돼 관람객에게 체험형 전시를 제공한다.
특히, 삼례문화예술촌의 시계와 역사적 요소를 반영한 대형 영상 콘텐츠 9개 테마(약 15분)는 몰입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 미디어아트관은 무료 관람으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기자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공모 선정

정읍 신대인읍 용서마을
정읍시 신대인읍 화호리 용서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마을의 소중한 역사와 주민들의 생생한 기억을 문화 작품으로 피워낸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 지역 마을의 문화 자원을 구술·채록해 문화 작품과 문화 자원으로 창작하고 이를 통해 마을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용서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구술 기록과 채록, 문화집 발간,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채로운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
용서마을은 정읍근대역사관과 구마로토 농장 가옥 등 근현대 생활 유산이 고스란히 보존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또한 '숙구지'라는 지명 유래를 비롯해 주민들이 간직한 풍부한 구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록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기록 작업과 문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마을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되는 방식이 아닌 전문 운영 단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과 제작물 창작을 밀착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 산내면 중항마을
남원시 산내면 중항마을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2026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리산 자락 산촌 마을인 중항마을은 오랜 세월 축적된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공동체의 기억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며, 특히 마을의 역사와 일상, 세대별 경험이 깊이 녹아 있어 구술 채록 등을 통한 이야기 발굴 가능성이 매우 크고, 무엇보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확고해 이번 사업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항마을에는 한지 제작의 기억과 소달구지 운송 이야기 등 주민들이 공유해 온 풍부한 공동체 서사가 남아 있으며, 시는 이러한 고유 자산들이 문화적으로 재구성된다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잠재력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춘향제 최초 '사랑 나눔런 온라인 챌린지'

남원시·춘향제전위위, 축제 분위기 확산·춘향 사랑 정신 공유 위해 시작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위회는 제96회 춘향제의 축제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춘향의 사랑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사랑나눔런 온라인 9.6km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온라인 챌린지는 최근 러닝 열풍과 디지털 소통 방식을 결합해 축제의 경계를 전국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며, 참여 방법은 춘향제 인스타그램(@chunhyangje)에서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뒤, 전국 어디서든 2인 1팀이 되어 합산 9.6km를 완주하면 된다.
이후 거리 측정 앱으로 확인된 완주 기록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 작성 및 네이버 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온라인 인증을 마친 팀 중 선착순 96팀(192명)에게는 5월 2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러닝 참여권이 주어지며, 이날 레이스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부 천사 아티스트가 스포셜 게스트로 참여해 참가자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예정이다.
참가비 수익금 일부가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되는 만큼, 참가자들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며, 참여자를 위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챌린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시크릿 박스'가 배송되고,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한옥 명소 명지각 숙박권을 제공해 축제 기간 방문객들에게 프리미엄 한옥 체험의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며, 남원시 관광과(063-620-577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중국 사천성 청소년 교류단과 협력 방안 논의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2일 사천성 청소년 교류단과 만나 한·중 청소년 전통예술 교류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오는 7월 사천성 청소년들의 남원 방문과 9월 용성중학교의 사천성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악을 매개로 한·중 미래세대 간 상호이해와 우호를 넓히고 공연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학교 연계를 이루려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는 중국 측 겸부 사천성 청소년 교류단장인, 국내에서는 김중현 국립민속국악원장, 송진섭 용성중학교 교장, 김기담 국립민속국악원 학예연구사가 참석해 교류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국립민속국악원이 지향해 온 교육·체험 중심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제 현장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악원은 오는 7월 사천성 청소년들의 남원 방문에 공연 관람뿐 아니라 국악기 체험, 전통예술 교육 국악원 공간 체험, 지역문화 탐방 등을 아우르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이어 9월에는 남원 용성중의 사천성이 방문



이 추진, 양국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와 예술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또래 간 교감을 넓히는 상호방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중현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오랫동안 함께 한 용성중 국악관현악단과의 협력 기반 위에서, 국립민속국악원이 양국 청소년의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민속국악원은 앞으로도 용성중을 비롯한 지역 교육 현장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통예술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기자

▶ 인터뷰 - 김경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문화유산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국고미술협회 김경수 회장이 문화유산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을 돌며 회원과 관련 업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강민우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4명과 함께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를 찾아 지역 고미술협회 협회장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미술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주 방문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협회가 추진 중인 문화유산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회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지금 한국 고미술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고미술협회는 전국 약 47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 지역에도 5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규모지만, 실제 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젊은 세대 유입도 어려워 산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1962년

전국 순회하며 회원·관련업계 지지 호소

에 제정된 문화재 관련 법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된 이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6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에는 문화재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문화 교류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반출 금지라는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보호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의 활용과 확산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문화유산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수출 허용'이다.
그는 "국보나 보물과 같은 지정문화재는 당연히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그 외 일반 고미술품까지 일괄적으로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50년 이상 된 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묶이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며 "시대 구분 없이 중요 문화재를 제외한 유물은 해외 전시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단순히 시장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최근 활발한 한류 문화 확산에 이어 K-전통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컬렉터들이 한국 고미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적 장벽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문화를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지금, 전통문화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고미술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부산, 전주 등 주요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중앙에서 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회원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고미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도 중요한 과제"라며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발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도 오랜 기간 고미술 분야에 몸담아온 전문가다. 그는 TV쇼 진행

명품 감정위원으로 7년여간 활동하며 토키와 민속품 분야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경남 마천과 서울 인사동에서 '월당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가업은 1972년 선친에 의해 시작돼 반세기 넘게 오랜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고미술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지난 2년 4개월여간 협회를 이끌었다.
그는 "회장 임기 기간이 많지 않지만 한국고미술협회 발전에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며 "문화유산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고미술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관광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회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미술협회에서는 오는 6월 23일 국회에서 문화체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영경 국회의원과 간사 박정희 의 10인 주관으로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 방안 세미나를 연다. /1만호기자